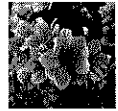




탠중신문



2023년 11월 17일

첫 '수학여행' 짜릿해요

2박3일 경주·부산으로

코로나의 여파로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던 2008년생 학생들이 태어나 최초로 수학여행을 갔다.

수학여행 코스는 경주·부산으로 결정되었고, 2박3일로 떠났다.

태인중학교 학생들은 경주에서 불국사, 경주월드, 첨성대왕릉, 경주국립박물관, 동굴과 월지 등 부산에서는 부산영화박물관, 해운대, 해운대 블루라인 등, 경주·부산의 여러 관광지과 문화유산을 방문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학생들은 숙소에서도 즐겁게 놀았다. 1일차 숙소에서 피자 3판, 치킨 3박스를 8분만에 다 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하고 난텐도와 랜덤게임을 재미있게 놀았다.

2일차 숙소에서는 장기자랑과 레크레이션이 진행되며 학생들의 흥과 끼



를 잘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고 학생들이 지쳤을 때쯤 통닭을 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의 시.

「그날」

버스에서 같이 게임했던 그날
밥이 맛있었다며 불평하던 그날
경주월드에서 흠뻑 젖은 그날

모두 모여 웃고 떠들던 그날
바다에 모여 사진 찍던 그날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잊지 못할 추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할거야

홍우현·김성빈·김찬하·김민혁·
조민준·박창욱·김정우·신가경·
김민우·이재희 기자

“체력만큼은 내가 1등” 올림픽 뽐치는 경쟁

추계 체육대회 열려

2023년 10월 20일 가을을 맞이해 태인중학교 추계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배구, 풋살, 플로어볼, 농구 등 활발하고도 열정적인 체육 활동을 벌였는데, 이번 체육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태인중학교의 오랜 징크스 때문이다. 태인중학교에는 1반이 체육을 잘하고 2반은 공부를 잘한다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행사로 그 징크스는 깨져버리고 말았다.

바로 2반이 체육대회에서 1반을 누르고 우승한 것이다.

이번 행사로 인해 2반은 공부뿐만 아니라 체육에서도 우위를 보이게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체육대회 현장에서 만난 3학년 2반 학생회장 최사랑 양은 “이번 체육대회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3년 동안 총 6회의 체육행사를 거치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첫 우승을 해서 참 기쁩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 비가 많이 와서 체육대회의 꽃인 계주를 못 해서 아쉽고 슬프지만, 체육대회 때 먹은 삼겹살과 중학교 생활 마지막으로 쌓은 친구들과의 우정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관한 체육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밝혔다.

강빛나리·김민지·김새별·김수화·김윤빈·
김연서·김예원·박보경·백인화·최사랑 기자

교과서 덮고...풍요롭게 '한 마음'

태산축제, 각종 공연·체험 등 성황

7월 18일 태인중학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회 주관의 태산축제를 실시하였다.

오전에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연 무대가 이루어졌다.

공연은 밴드부 친구들의 무대로 시작되었다. 이후 각 학급의 무대를 만나 보았다.

1학년 친구들은 '싸이의 챔피언' 무대를 보여주었다. 2학년 친구들은 '바나나 차차, '학교를 안 갔어' 무대를 보여주었고, 3학년 친구들은 '재틀맨', '틀리폴리', '짜라빠바', 'uptown funk' 무대를 보여주었다. 이후 개인별 무대가 시작되었다. 여러 친구들이 나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태산축제를 즐겁게 만들어주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 몰래 공연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에

게 큰 재미를 선물해주었다. 이번 태산 축제에서 처음으로 여장남장대회, 헬스보이 공연을 하면서 더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태산축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오후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진로 및 도서관 부스 행사가 이루어졌다. 여러 진로 체험을 하고 도서 행사에 참여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또 학부모 주관으로 먹거리 장터도 운영되어 더욱 풍요로운 축제였다.

한소영·임현후·김동준·박교남·오선균·
김수민·노성욱·김지웅·김현서 기자

태인중 파이팅



배움과 존중으로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우리학교

태인중학교

전북일보 1일 기자체험/ 2023. 11. 17.